

광산구 일부 동 경계구역 조정 시급

같은 아파트 A-B동 관할 동사무소 달라 주민 혼란 초래 동간 경계조정 필요 지역 9곳...“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도 관할 동사무소가 서로 달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일부 동(洞)간 경계구역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관할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마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산구 ‘테라스56 피크닉몰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50여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의 경우 A동은 월곡2동 관할이며, B동은 하남동 관할이다. 소규모 세대의 아파트인데도, 행정구역이 둘로 쪼개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입부터 A동은 월곡2동사무소, B동은 하남동사무소에 각각 신고하고 있다. 자녀의

학구도 달라 A동은 대반초등학교, B동은 하남초등학교로 배정되는가 하면 동별 통장의 소속도 다르다.
비아동 KBS 송신탑 부지에 건설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도 비슷한 사례다. 신축중인 해당 아파트 관할은 비아동인 반면 바로 옆 아파트 단지는 신창동 관할로 행정구역이 다르다. 준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주민 혼란 등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간 경계구역이 학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쪼개지는 사례까지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산구 신흥동 관할인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운동장 절반을 관통해 신흥동

과 송정1동으로 관할 구역이 나뉜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 사무를 놓고 혼란이 초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가 예정된 ‘광주 산정대광로 제비앙아파트’ 인근도 관할동이 2곳으로 나뉘어져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내에서 현재까지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만 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선 광산구의원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관할 동사무소가 달라 주민들간 공동체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히 동간 경계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간 경계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발전 방향 모색한다 광산구 ‘청년이 그린 내일 청그림’ 개최...29일 쌍암공원

광주 광산구는 “오는 29일 첨단 쌍암공원에서 2022 광산구 청년총회, 청년이 그린 내일 ‘청그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들어 두 번째 맞는 광산구 청년총회에서는 ▲정책펀드 ▲보이는 라디오 ▲정책포차 ▲청년뮤지컬-청년디제잉 ▲체험·판매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정책펀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청년정책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듬어 5건의 정책의 제를 선정하고 행사 당일 공감하는 정책의제에 꽃화분을 심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이는 라디오’는 청년의 다양한 사연을 전한다. ‘정책포차’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재무·마음·정책상담, 취업홍보 등을 제공한다.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청년디제잉 공연, 청년 가드닝 행사를 통해 흥과 활력을 돋우며, 율한해 청년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해 청년총회는 청년과 시민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이를 위해 필



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그리는 내일이 실현되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 고갯길 원정대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륙습지,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명품 30리길'을 걷고 있다.

“광산구민의 날, 상상·혁신 새 변화 다짐”

풍영체육시설단지서 기념식...통장 한마음 축제도 열려

광주 광산구는 26일 풍영체육시설단지에서 민선 8기 구정목표인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를 슬로건으로 제31회 광산구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이지만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광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 일정을 조정했다.
‘조선판스타’ 우승자 출신 김산욱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광산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살펴보는 영상 상연, 구민현장 낭독, 광산구민상 시상,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민상은 ▲하남농복지(광산구 동 지사협

위원장협의회 회장 김현님) ▲자치공동체공헌(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전창현) ▲문화예술교육(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장운경) ▲지역경제(한마음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석원) ▲친환경(자원순환가게 활동가 최희정) 등 5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뷰티테라피, 자원봉사센터 등 16개 체험 및 홍보 판매 부스도 운영됐다.
이날 기념식 후 같은 장소에서 마을자치의 침범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광산구 21개 동 통장들의 상상과 화합을 다짐하는 ‘통장 한마음 축제’도 열렸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시민과 ‘명품 30리길’ 탐방...“높은 기대감 확인”

2차 ‘광산 고갯길 원정대’ 운영...성공적 사업 위한 의견 수렴

광주 광산구는 “지난 22일 민선8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명품 30리길’ 주요 구간을 따라 ‘광산 고갯길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산 고갯길 원정대는 광산구의 트레킹(도보여행) 코스를 시민이 직접 걸으며 인문, 자연, 생태 등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첫번째 행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운영한 원정대는 광산구의 핵심 시책인 명품 30리길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명품 30리길은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륙

습지,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12km를 생태·역사·문화 등 광산의 매력을 담은 걷기 좋은 탐방로로 조성해 시민에게 쉽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원정대는 이날 여세가 물결치는 황룡강 자전거길을 따라 동곡 두물머리를 거쳐 호가정까지 걸으며, 30리길에 대한 의견과 기대감을 나눴다. 원정대는 트레킹 후 보행로와 자전거길 등 연결성 확보와 꼼꼼한 정비, 탐방로를 찾은 시민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명품 30리길의 주요 구간을 걷고 소통하며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명소에 대한 높은 열망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명품 30리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 선출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1회 정기회의에서 제6대 부회장 도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비율이 3% 이상인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1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도시로 김포시, 부회장 도시로 광산구, 시흥시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11월 7일부터 2년이다.

광주·전남 유일한 회원 도시인 광산구는 인구 42만 명 중 외국인 주민이 2만 2132명(2020년 11월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유일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 마을 중심으로 고려인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현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의 행보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협의회 발전과 회원 도시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